



# Issue & Brief

## 2014~2021년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유병률 및 의료이용 행태 추이 변화

### 분석개요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는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및 서울시에서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중증정신질환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중증정신질환자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정신장애 판정 기준」과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아래의 중증정신질환의 질환 코드(ICD-10 코드)를 포함하였다.

#### ○ 중증정신질환 정의(ICD-10코드/질환명)

**F20-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

조증  
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2.3**

정신병을 동반한  
우울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 ◆ 중증정신질환 유병자는 중증정신질환의 질환코드를 주상병으로 1회 이상 의료이용(입원 또는 외래)을 한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한방 의료기관 및 치과에서의 의료이용은 제외하였다. 유병률 산출 시 해당 연도의 의료보장 인구를 적용하였다.
- ◆ 이번 이슈앤브리프에서는 지난 2021년 1호, 2021년 2호에 이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및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의 규모와 의료이용 행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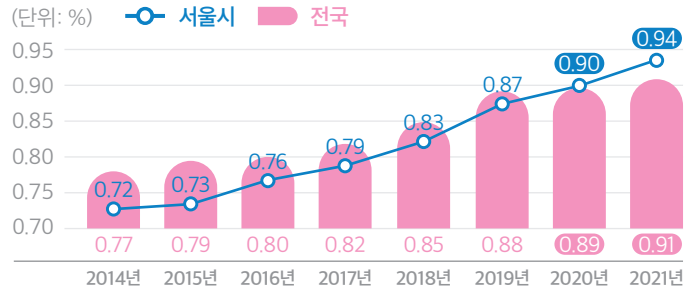
- ◆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중증정신질환자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유병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유병률이 전국보다 높아지고, 자치구별 최대·최소 유병률 차이가 증가함에 따라 추후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확인한 결과, 외래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입원율은 2017년 이후 감소하였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유병률 증가에 따라 외래이용률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2017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입원의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입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 ◆ 마지막으로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외래방문율을 살펴보면, 재입원율은 서울시 전국에 비해 낮고, 외래방문율은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년 이내 재입원율은 평균 50%정도로 높은 수치를,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은 67%정도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추후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재입원율과 외래방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치료중단 및 치료지속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1년 유병률 추이 변화

$$\text{1년 유병률(\%)} = \frac{\text{해당연도 중증정신질환자 수}}{\text{해당연도 의료보장 인구 수}} \times 100$$

## 전국/서울시 중증정신질환 1년 유병률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의 1년 유병률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 2019년까지 전국 유병률이 서울시보다 더 높았지만 2020년 이후 전국과 서울시 유병률이 역전되었다.



##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1년 유병률

- 2014년에 서울시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던 강서구, 동작구, 성북구는 2021년에는 서울시보다 낮은 유병률을 보였다.

2014년

- 자치구 중 당해연도 서울시 1년 유병률보다 낮았던 지역(10개구)
- 자치구 중 당해연도 서울시 1년 유병률보다 높았던 지역(15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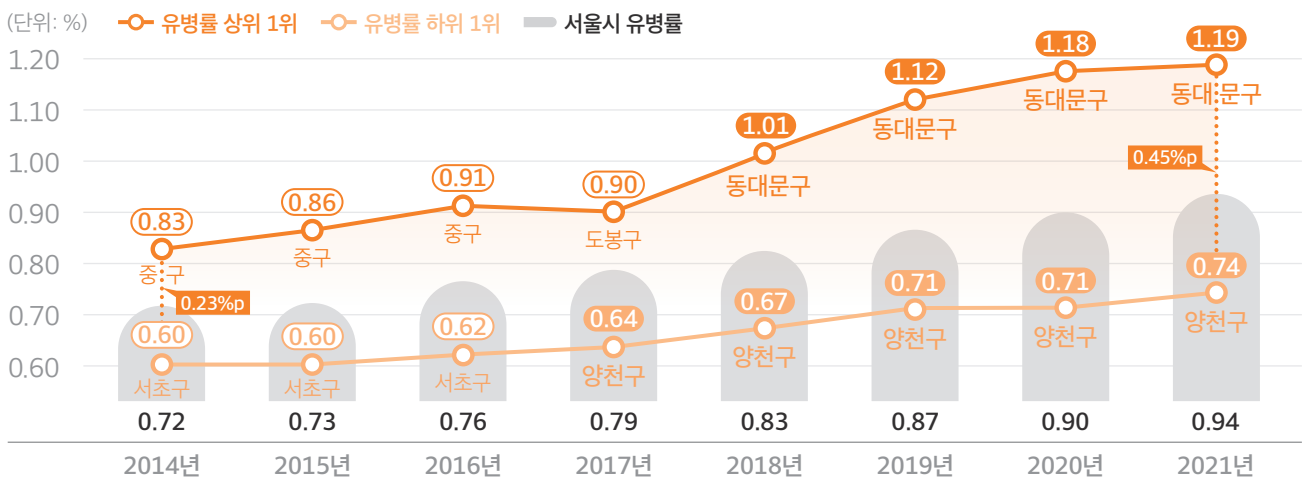


2021년

- 자치구 중 당해연도 서울시 1년 유병률보다 낮았던 지역(13개구)
- 자치구 중 당해연도 서울시 1년 유병률보다 높았던 지역(12개구)



- 유병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와 가장 낮은 자치구의 격차는 2014년 0.23%p에서 2021년 0.45%p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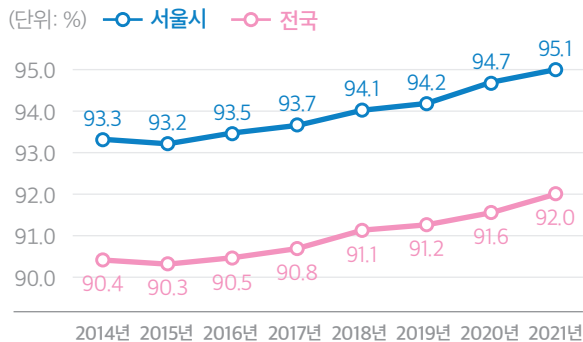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외래이용률 추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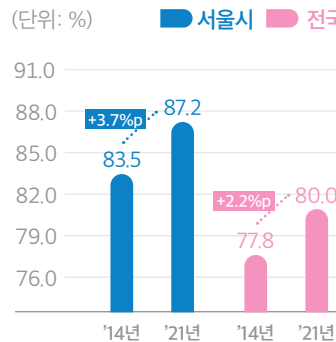
$$\text{외래이용률(\%)} = \frac{\text{해당연도 1회 이상 외래를 이용한 환자 수}}{\text{해당연도 중증정신질환자 수}} \times 100$$

- ◆ 2015년 이래로 전국 및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의 외래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중 의료급여 가입자의 외래이용률은 전국보다 높았으며, 특히 2014년 대비 2021년 서울시 의료급여 가입자의 외래이용률은 전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전국: 2.2%p 증가, 서울시 3.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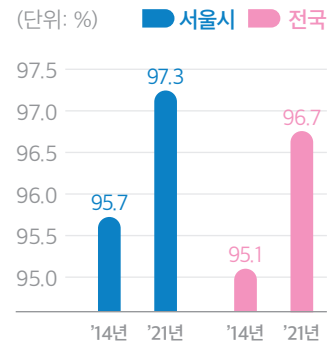
· 전국과 서울시 외래이용률 비교



· 의료급여 가입자의 외래이용률 비교



·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이용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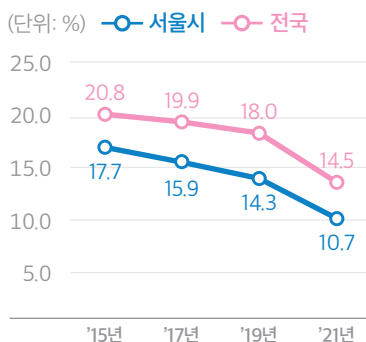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율 추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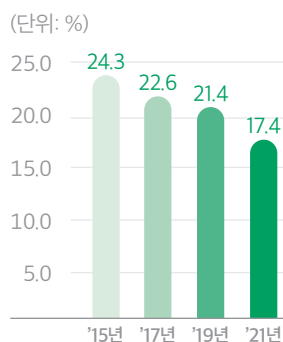
$$\text{입원율(\%)} = \frac{\text{해당연도 1회 이상 입원한 환자 수}}{\text{해당연도 중증정신질환자 수}} \times 100$$

- ◆ 전국 및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의 병원 입원율은 2017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며, 서울시는 전국에 비해 낮은 입원율을 보였다.
- ◆ 서울시 입원율은 모든 진단유형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F20-F29 및 F30-F31 진단환자의 입원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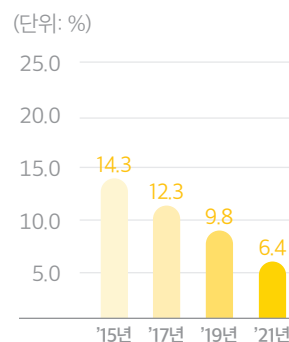
· 전국과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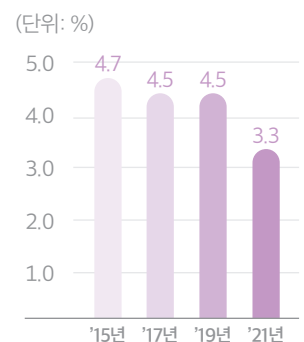
· 서울시 F20-F29 진단환자 입원율



· 서울시 F30-F31 진단환자 입원율



· 서울시 F32.3, F33 진단환자 입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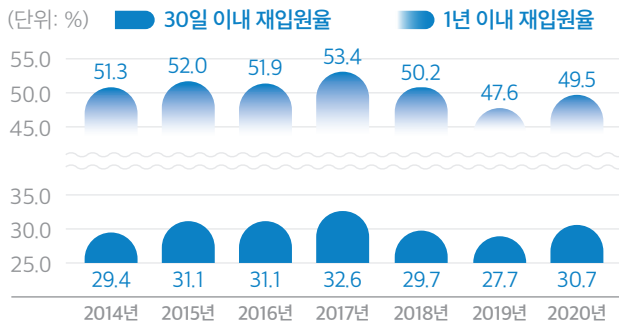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재입원율 추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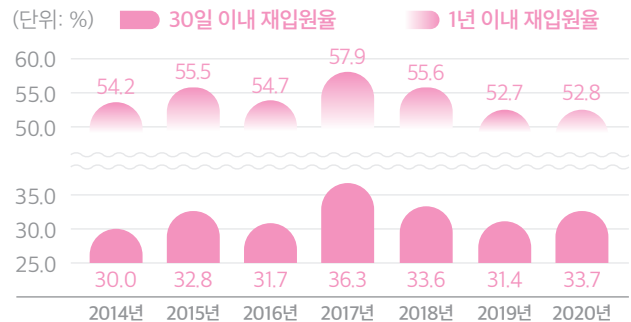
$$\text{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 \frac{\text{해당연도 퇴원 후 30일 이내 1회 이상 재입원한 환자 수}}{\text{해당연도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수}} \times 100$$

- ◆ 전국 및 서울시 퇴원 후 재입원율은 2017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며, 서울시는 전국에 비해 낮은 재입원율을 보였다.

### · 서울시



### · 전국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 추이 변화

$$\text{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 = \frac{\text{해당연도 퇴원 후 30일 이내 1회 이상 외래 이용한 환자 수}}{\text{해당연도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수}} \times 100$$

-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은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기준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3명 중 2명 꼴로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를 방문하였다.

